

三層塔身幅 二九
露盤高 五·五
三層屋蓋長 五一
覆鉢高 三·五

幅 二三
徑 一九

以上の塔・像에 對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五二八頁

註①、春川市內의 寶物指定塔으로서 上層의 屋蓋와 屋身의 手法을 살필 것

②、金和英·「春城郡 南面 倉村里의 三層石塔」——(本誌第四卷第四號)

全羅北道 海岸一帶의 先史遺蹟

崔 夢 龍

一九二九年 七月에 今西龍博士가 全羅北道의 金堤郡·井邑郡·扶安郡 等 西部地域을 踏查하여 發見한 先史時代의 遺蹟址를 發見하여 一文을 發表하였으며 ① 一九二七年 朝鮮總督府에서 全國各地에 散布된 資料를 蒐集하여 調査資料를 發刊했던 ② 以後로는 全羅北道一帶의 先史時代遺蹟址에 關한 專門의 報告는 全然 없었으며 數年前 金元龍教授도 『湖南地方의 史前遺蹟址의 發見이 切實히 기다려진다』고 吐露한 바 있다.

筆者는 數個月前부터 이 地方에 對해 調査해 보고 싶은 興味를 가져 지난 三月六일부터 三月十一日에 걸쳐 同學 郭乘勳君과 함께 全羅北道 海岸에 面하고 있는 現行行政區域單位로 群山市를 包含한 沃溝郡·金堤郡 扶安郡·高敞郡의 一市四郡을 豫備調査하여 새로히 扶安郡에서 支石墓 二基를 發見하였기 于先 簡單히 略述하려 하는 바이다.

一

扶安郡에서는 邊山半島를 中心으로 調査하였으나 時間의 制約上 現在 紹介되어 있는 資料를 全般에 걸쳐 踏查하지는 못하였으나 山內面 大項里 蛤九味(조개미)에서 貝塚一個所를 保安面 牛東里 萬化洞에서 大規模

第八卷 第四號 通卷八十一號

의 南方式 支石墓 二基를 새로히 發見하였다.

(a) 下西面 白蓮里 支石墓

이 곳은 이미 그 存在가 일찌기 알려져 있던 곳이나 現在 資料가 몹시 曖昧하여 ④ 여기에 正確性을 기하고자 한다.

支石墓는 扶安邑에서 格浦行岬스를 塔면約三十五分餘만에 이르는 下西面 白蓮里 西쪽에 北쪽 標高二四六m인 大光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가 北쪽 海邊에 이르는 標高約一〇七m 되는 瓢形의 잘룩한 허리部分을 形成하고 있는 듯한 두개의 봉우리 사이 國有林인 平地를 이루는 곳에 存在하고 있다.

南에서 부터 番號를 A·B·C로 붙여 놓은 三基의 支石墓는 모두 南方式이며 A와 B는 確實히 알 수 있으나 C는 蓋石만이 나뉘고 그러저 있으며 東쪽 一m되는 地點에는 濟州道 北濟州郡 涯月面 郭支里에 있는 支石墓 B와 C의 蓋石下에서 보이는 ⑤ 것 보다 큰 圓形堅穴이 있어 支石墓라 一旦 斷定을 해보나 어딘가 釋然치 못한 點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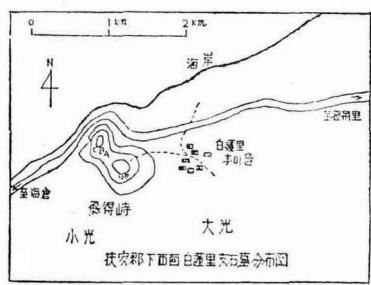
支石墓 A 邊山半島一帶에는 斑岩이 主로 되어 있어 ⑥ 여기에 存在하는 支石墓도 石質이 同質인 斑岩으로 되어 있다. 蓋石 밑에 六個의 支石으로 받혀진 南方式 支石墓의 南北最大長軸은 三·五三m이며 東西二·六四m 幅約 〇·九三m이다.

支石들은 成人한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 있을 만치 높아 內部는 數年前 모두 盜掘되어 攪亂狀態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내 어린아이들이 內部에서 古錢 한 주먹을 끄집어 내어 玩具로 使用하였다는 傳言을 들었으나 確實치 않다.

支石墓 B

外見은 長方形에 가까우며 內部는 이미 盜掘되어 덩그러니 壕만 들여다 보



였다.

南北最大長 一·四五 m 東西最大長 二·八 m 이며 幅은 約 〇·四 m 이다.

註

① 今西龍：「全羅北道 西部地方 旅行雜記」(百濟史研究) 一九三五年 서울附錄 p. 四一五—五九三

②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全羅北道條 一九四二年 朝鮮總督府

③ 金元龍：「湖南先史考古學의 二、三問題」 湖南文化研究第一輯(一九六三年 光州) P. 10

④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P. 一五五 扶安郡一、支石에 二基가 있는 데 길이가 一問半 幅이 一問이라고 매우 不確實하게 報告되어 있다.

⑤ 拙稿：「郭支里支石墓踏査報告」 文理大學學報 第十三卷 一、二合併號(一九六七年 二月) P. 一五五

⑥ 大韓地質圖 一九五六年度版

考古美術 卍—

◎ 文化財委 一分委 (第二次) 會議

一九六七年 三月 二十日 文化財管理局에서 開催 出席者 金庠基 李弘植、裴吉基、鄭寅國、崔淳雨、秦弘燮、文財局長、文化財課長、同課兩係長

討議案件

一、延世大 公州錦江邊 先史遺蹟發掘許可申請可決

一、秦陵區域內 트래이닝·센터設置許可申請

四〇〇m 트래設置만許可하고 現存 一切 施設과 함께 一九七〇年末까지

使用하는 條件으로 可決

一、寶物一七七號 社稷壇正門移轉申請 保留 서울特別市 朱都市計劃局長、尹計

副課長 金道路係長과 連席 서울市內遺蹟全般 特別 社稷壇正門、毓祥宮에

關하여 意見を 交換함. 서울市에서 文化財委와 서울市都市計劃委와의 連

席會議를 提議

一、文化財指定

寶物 堤川長樂里七層模塼石塔

史蹟 李朝王陵(個別的으로)

史蹟 一〇號 서울城廓

水口門에서 獎忠洞、漢南洞、梨泰院洞、龍山洞、厚岩洞에 이르는 地域

의 城廓을 追加指定

法住寺大雄殿은 調査後 審議키로

一、指定文化財 現狀變更 許可申請

佛國寺觀光호일증책

公州公山城內綜合病院新築

幸州山城內李忠貞公墓碑建立 否決

◎ 石窟庵 및 佛國寺 釋迦塔 舍利裝置 遺物 管理 小委員會

石窟庵의 保存管理와 佛國寺 釋迦塔 舍利裝置 遺物의 保存管理問題를 常時 研究 調査하여 文化財委員會의 施策을 도움기 爲한 常設 小委員會가 文敎部에 構成되어

서 그 첫 모임을 四月十日 下午二時 文化財管理局에서 召集되었다. 이 小委員會는 文化財委員會 第一分科 李弘植委員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一部 文化財委員이 앞

으로 同文化財에 對한 保存科學의 人 調査研究을 強化하기 위하여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李泰寧教授 서울大學校 文理大 金孝經教授 등이 이 小委의 委員으로 委囑되었다.

이날 出席한 委員은 李弘植 崔淳雨 鄭寅國 李泰寧 金孝經氏 등이었으며 特別히 金庠基 文化財委員長도 이 小委의 運營을 도움기 위하여 參席했다.

이날 討議事項과 報告事項은 다음과 같다. 佛國寺 境內에 新築키로된 釋迦塔、舍利殿設計를 檢討한 바 面積이 狹少한 硯 더러 設計內容이 不適當하므로 原設計者 張起仁氏에게 다음과 같은 條件을

붙여서 再設計시킨다. 1、建坪은 二十坪으로 할 것 2、建築樣式은 舍利外函의 外觀樣式을 擴大하는 方向으로 하되 細部裝飾을 省

略한 鐵筋콘크리트로 할 것 3、釋迦塔 舍利裝置遺物을 保存 科學의 人 面에서 檢討調査하기 爲해서 李泰寧教授의 慶州出張이 要請되었음.

4、同 舍利殿에 展示한 遺物은 舍利外函을 비롯한 金屬製品類 玉石製品類 儒香 및 陀羅尼經卷에 局限하며 餘他的 遺物은 서울의 適當한 機關에 옮겨